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4. 1. 10.(수) 14:00 < 1.11.(목) 조간 > 배포 2024. 1. 10.(수)

장관, 경제 6단체 릴레이 소통 첫 행보로 한국무역협회 방문

- 역대 최대 수출 실적 달성을 위해 민·관 수출 원팀코리아로 뭉쳤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1. 10.(수) 한국무역협회를 방문하여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과 면담했다. 이번 방문은 장관 취임 이후 경제 6단체와의 소통강화를 위한 첫 번째 행보로, 올해 수출을 정책 최우선에 두고 확고한 우상향 기조를 위해 민·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하에 이뤄졌다.

안덕근 장관은 "올해에도 '수출이 곧 민생이다.'라는 각오로 수출 우상향 기조를 확고히 하고, 수출이 우리 경제성장을 최선두에서 이끄는 핵심 견인차 구실을 하도록 민·관이 원팀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으며, 이를 위해 "정부는 무역금융 355조 원, 수출 마케팅 1조 원 등 역대 최고급 규모의 수출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 '수출현장 지원단' 등을 통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수출지원대책 마련 과정에서 수출업계를 대표하는 협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경제동반자협정(EPA) 등 신(新)통상 협정 체결을 통해 우리 경제영토를 확장하여 우리 기업의 신규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홍해의 해상물류 차질과 관련하여 물류업계와 연결망(네트워크)을 구축하고 있는 협회가 함께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 해 나가자고 전했다.

구자열 회장은 안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며 "안 장관은 이론과 정책 실무를 겸비한 국제 통상 전문가로서, 자국 우선주의가 심화하는 무역 환경 속에서 우리 산업과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한국무역협회도 최근의 수출 회복 추진력(모멘텀)이 장기적 산업 경쟁력으로 확장·지속할 수 있도록 민간의 정책 동반자(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언급했다.

안덕근 장관은 이번 무역협회 방문을 시작으로, 남은 5개 경제단체, 기업들과의 소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담당 부서	무역정책관 무역정책과	책임자	과 장	정상용 (044-203-4020)
		담당자	사무관	서두원 (044-203-4024)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